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을 위한 가정의 총투자량과 영향요인 :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비교

Human Capital Investment in Children :
By the employment status of housewife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문 숙 재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 사 김 성 회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Prof. : Sook Jae, Moon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Lecturer. : Sung Hee, Kim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the households invest in their children as a human capital. In addition, contributing factors to households' human capital investment was examin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verage number of children 2 children of surveyed housewives, full time housewives had more time spent for children than working counterparts. The former spent 6.8 hours a day with the latter 4.98 hour a day while both of them shared the most time in nonphysical care of their children. Meanwhile, money paid for children was that full time housewife family spent 1,014,000 and a working housewife family paid 974,000.

Second, In the full time housewives, total amount of time housewives spend for

their children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income, the age of the youngest child, and emotional value. The housewives' educational level, life cycle, and an income were a significant impact on money investment. Total investment was influenced by the housewives' educational level, husbands' job, life cycle, and an income. Meanwhile, in the working wives, time investment was influenced by life cycle, the number of children, and emotional health. The housewives' educational level, income, and the number of children were a significant impact on money investment, and total investment was influenced by the housewives' educational level, life cycle, income, and the number of children.

1. 문제의 제기

자녀의 질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의 저량으로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노동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적자본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자녀의 인적자본에는 능력, 지식, 기술, 경험 및 건강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적자본의 축적이 많을수록 자녀가 발휘할 수 있는 노동력의 생산성뿐 아니라 잠재적인 미래의 소득과 사회적 성취 가능성이 증가되며, 또한 자녀의 사회적 성공은 가족 전체의 지위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Becker, 1981; Schultz, 1961; Papanek, 1979; 조성숙, 1994). 그러므로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가정의 노력은 자녀와 가족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는 '투자'의 성격을 갖게 된다.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는 일반적인 정규교육, 특수교육 및 훈련,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및 서비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한 이주 등 여러 형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박창영, 1991), 가정의 자원 소비를 기초로 할 때 시간투자 및 금전투자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시간투자란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자녀양육과 교육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비한 시간이나 혹은 자녀로 인해 간접적으로 증가된 시간이 모두 포함되며, 이는 자녀양육의 주된 책임자로 기대되는 주부의 시간배분과 밀접하게 관련된다(Bryant, 1992). 특히 자녀의 연령이 어릴 경우 자녀에 대한 투자행동은 시간집약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시간투자가 중요시된다.

반면 자녀에 대한 금전투자는 자녀의 의·식·주, 교통, 교육, 건강, 의료 등 자녀의 인적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화 및 서비스를 위해 돈을 지출하는 것이다(Espenshade, 1984; Lino, 1990, 1992, 1994). 자녀에 대한 금전투자는 가계의 지출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생활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의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가정에서의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행동은 자녀의 미래의 생산성 향상 및 자녀의 경제적 복지의 증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자녀의 미래 생활과 사회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인적자본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자인 Marshall(1956)이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1960년대 이후 Schultz(1961)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Schultz는 한 나라의 경제성장이 인간의 능력 향상과 같은 인적자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물질 자본의 성장 및 단순한 노동의 투입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였다. 최근에는 미국의 경제학자 및 가정학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발전되어 인적자본의 측면에서 자녀출산 및 양육(Blau, 1992; Joesch, 1994),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가정의 지출비(Espenshade, 1984; Lino, 1990, 1994), 자녀교육년수와 소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Schultz, 1974)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육학 분야에서는 교육을 통한 미래의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는 교육에 의한 잠재적 능력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용환, 1991).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에 대한 연구는 자녀의 인성, 지능, 적응 등의 개인적 발달과

성장에 초점을 두거나 취업주부 가정의 양육문제, 자녀양육을 위한 역할분담 및 양육 담당자, 그리고 타아서비스의 필요성과 질적 요구에 대한 연구(이명숙, 1983; 김정자 외, 1987; 위미혜, 1989)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인적자본 형성의 측면에서 자녀양육이나 가정의 투자행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는 가족의 상황, 재정상태, 자녀의 특성, 그리고 부모의 심리적 특성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자녀양육의 기본적인 책임은 가정, 특히 주부에게 있으므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일련의 결정은 주부에 의해 이루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이나 주부 자신의 생활에 결정적 차이를 가져오는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자녀를 위한 시간 및 금전투자 행동은 다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부의 취업유무를 중심으로 자녀의 인적자본을 위한 총투자량과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가정의 자녀양육 및 모자복지와 관련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첫째, 자녀를 위한 가정의 투자를 자원에 따라 시간투자 및 금전투자, 총투자로 파악하고, 첫자녀 연령에 따른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가정의 시간투자량과 금전투자량을 비교한 후, 둘째,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량 결정 요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녀의 인적자본을 위한 투자행동

일반적으로 자본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고, 자본을 창출·유지·증식시키기 위해 투자가 요구되는 것으로써, 크게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으로 구분된다. 물적자본은 기계나 생산설비와 같은 것으로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자본의 의미를 좀 더 포괄적으로 볼 때 노동, 토지 등과 같은 물적자본 뿐만 아니라 미래 소득의 흐름을 제공하는 원천으로써 학교교육이

나 직장내 훈련, 학령전 교육, 노동경험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지식이나 기능은 물론 정보, 건강, 그리고 다른 개인적 특성 등도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인간의 체내에 내재한다는 의미에서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다(Becker, 1975; Ehrenberg & Smith, 1994; Mincer, 1970; 박일규, 1995). 즉, 인적자본은 노동력의 질적 요인을 뜻하므로 인적자본의 증가를 위한 투자는 미래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며, 미래에 노동시장에서 얻게 되는 소득이나 성취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행동은 자녀의 미래 소득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직적인 활동(이스트우드 저, 김용희, 편역, 1988)으로 시간투자와 금전투자행동으로 구분하였다.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시간투자 행동이란 가족 구성원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예를들면 주부의 자녀양육과 관련된 가사노동시간을 말한다(Becker, 1980; Mincer & Polachek, 1973; 박일규, 1995). 반면 자녀를 위해 가정의 소득을 지출하는 것은 자녀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한 의·식·주나 건강, 교육을 위해 금전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자녀에 대한 시간투자

자녀양육은 가정생활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투자유형으로서, 자녀들의 의·식·주생활, 그리고 자녀양육 및 교육에 투입된 시간량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Becker, 1980; Deaton & Muellbauer, 1986; Espenshade, 1984; Schultz, 1973, 브라이언트 저, 문숙재, 김순미, 소연경, 홍성희 공역, 1993, Blau와 Ferber 저, 문숙재, 김순미, 정성희 공역, 1994). 자녀는 부모의 개인적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녀양육의 총 비용 중 많은 부분은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투입하는 시간으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경우 자녀양육은 주부가 담당하므로 주부의 시간으로 구성된다(Gronau, 1991; Ghez & Becker, 1975; Mincer & Polachek, 1973; 브라이언트 저, 문숙재, 김순미, 소연경, 홍성희 공역, 1993). 자녀양육을 위한 주부의 시간비용은 총 자녀양육시간비용 중 2/3 정도를 차

지한다는 Becker(1980)의 연구결과는 주부의 시간이 자녀양육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내에서 가족구성원들이 여러가지 유형의 효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경제적 의사결정 중에는 시간배분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

주부의 시간배분은 여성의 교육기회의 증가, 직업의 유용성 및 교육수준의 향상과 가계생산에서 시장생산으로의 변화 등에 의해 기회비용 개념을 변화시키게 되었다. 즉 주부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 시간을 소비함으로써 상실하게 되는 시장노동의 임금 등을 포기하는데 대한 기회비용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Becker, 1993; Mincer & Polachek, 1973; Sever & Cymrot, 1984; Blau 와 Ferber 저, 문숙재, 김순미, 정순희 공역, 1994; 이승신 외, 1996).

일반적으로 개인은 정해진 양의 시간을 시장노동, 가정노동, 그리고 여가에 각각 배분한다.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대신 시장노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주부는 시장노동에 의해 획득된 화폐소득으로 가계생산에 필요한 재화뿐 아니라 가계생산을 대신할 대체노동력을 구입할 수 있다. 즉 취업주부의 경우 시간자원을 시장노동에 투여하는 대신 창출된 소득으로 택시서비스와 기타 가정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시장노동으로 인해 부족한 가사노동시간이나 자녀양육시간을 시장서비스로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Nichols & Fox, 1983; Schwenk, 1986; Yang & Magrabi, 1989; 여성성, 1994; 문숙재, 김성희, 1995; 브라이언트 저, 문숙재, 김순미, 소연경, 홍성희 공역, 1993; 김혜연, 1995). 그러나 자녀양육의 시장비용이 증가하면 가정생산에 대한 여성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감소하며, 유급의 양육시간, 즉 자녀양육대체시간은 감소하게 된다(Blau & Hotz, 1992).

자녀양육에 사용한 주부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변화한다.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투자는 자녀가 어릴수록 금전투자보다는 시

간투자의 형태를 나타내며, 학령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금전투자가 증가하게 된다(八代尙宏 저, 이균 역, 1994). 이처럼 자녀에 대한 투자활동은 소비된 시간과 재화의 비율에 따라 재화집약(goods-intensive)적 활동과 시간집약(time-intensive)적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자녀양육은 시간집약적 활동이지만 자녀가 점차 성장하여 부모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독립하게 되면 재화집약적 활동으로 변화된다.

2) 자녀에 대한 금전투자

최근 자녀양육을 위한 가정의 지출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Becker, 1993; Connelly & Gottschalk, 1995; Deaton & Muellbauer, 1986; Espenshade, 1984; Gronau, 1991; Joerding, 1980; Lino, 1990, 1992, 1994; Schultz, 1993), 여기에는 음식물비, 주거비, 피복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포함된다(Espenshade, 1984; Lino, 1990; Olson, 1982; Turchi, 1975, 문숙재, 김성희, 1995).

Rothbarth(1943)는 자녀출생이 어른을 위한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녀출생전과 출생후의 지출비의 비교를 통해 자녀양육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자녀의 출생순위와 지출은 무관하며, 가계의 생활수준은 자녀의 성장과 무관하게 일정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지출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가계의 생활수준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자녀양육 측정방법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앵겔의 등가비용¹⁾의 개념을 응용한 Espenshade(1973)의 식비지출비율이다. 그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기 이전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소득액을 자녀양육비로 간주하였으며, 이때 경제적 생활수준은 가계 총지출 중 식비지출비율(PFDHM)을 이용하여 자녀양육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한 자녀를 위한 지출비는 자녀의 경제적 복지를 의미하므로 부모들은 자녀의 복지를

1) 등가비용(Equivalence Scale)은 가족수, 연령, 가족구성원의 차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경제적, 물질적 생활수준을 비교할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개념이다(Nelson, 1992, 1993).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주장하면서, 자녀양육비중 음식물비는 총지출의 22.5%, 주거비 24.1%, 교통비 25.1%였고, 이 세 비목이 총지출의 3/4을 차지하여 자녀를 위한 예산 항목 중 가장 중요한 비목임을 제시하였다(Espenshade, 1973, 1984).

위에서 제시한 자녀양육비 측정방법은 등가비율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미 농무성의 평균 양육비 측정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출생부터 18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총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총양육비에서 자녀수를 나눈 1인당 양육비 또는 평균 양육비를 의미한다. 미 농무성의 자녀양육비 측정방식 및 측정은 경제전문가, 공공정책가, 그리고 관련부서에 의해서 널리 연구된 바 있는데, 특히 소득수준이 중간집단의 경우 주거비가 전체 양육비의 33%, 식비가 19%, 교통비가 17%, 기타 10%, 의복비 8%, 자녀양육 및 교육 7%, 그리고 의료비가 6%로 자녀양육비용 중 주거비, 식비, 교통비의 순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Espenshade, 1977; Lino, 1990, 1992, 1994).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문숙재와 김성희(1995)는 학령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전업주부 가정의 경우 총 자녀양육비 중 교육비가 43.0%, 식비 29.3%, 의복비 10.1%, 의료비 7.5%였으며, 취업주부 가정의 경우는 총자녀양육비 중 자녀양육대체비가 36.1%, 교육비 29.5%, 식비 19.4%, 의복비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를 위한 예산 항목 중 교육비, 식비, 의복비가 중요한 비목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김행(1994), 조성숙(199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출의 증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Lino, 1994; 통계청, 1994).

자녀를 위한 시간투자와 금전투자를 비교하면, 금전투자에 비해 시간투자는 분명하게 인식되는 투자는 아니다. 자녀에 대한 시간투자는 금전투자에 비해 간접투자로 볼 수 있지만, 가사노동의 생산적 가

치를 인정하고 취업에 의해 벌어들이는 소득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가치로 측정될 수 있다. 따라서 시간가치와 금전가치를 총합함으로써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량을 파악할 수 있다(Becker, 1965; Hefferan, 1982; Lino, 1994).

2. 관련변수의 고찰

1) 가족 및 재정관련변수

인적자본 투자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부연령, 주부교육수준, 생활주기, 남편직업, 가계소득, 금융자산 등이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주부연령과 첫 자녀의 연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주부연령이 높을수록, 즉 첫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부의 보살핌을 요구하는 자녀의 요구가 감소되므로 자녀를 위한 시간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금전투자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Gaag, 1982; 문숙재, 김성희, 1995). 자녀를 위한 투자는 주부교육수준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어 주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므로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투자 및 금전투자가 증가하였다(Leibowitz, 1973; Schoggen & Schoggen, 1968; De Tray, 1973; Schwenk, 1986; Cunningham, 1990). 가계소득은 자녀를 위한 시간투자 및 금전투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계소득 증가에 따라 주부의 가정생산가치는 증가하므로, 자녀를 위한 주부의 시간투자가 증가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Gronau, 1973). Lino(1990, 1994)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녀를 위한 금전투자는 가계소득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여, 필수품의 경우 가계소득에 따른 지출비의 차이가 적었으며, 교육비, 자녀양육대체비, 기타 소비지출비는 저소득에 비해 고소득의 경우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총투자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간투자, 금전투자, 총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재정관련 변수에 주부연령, 주부교육수준, 남편직업, 생활주기, 가계소득, 금융자산 등을 포함시켰다.

2) 자녀관련 변수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녀수, 막내자녀연령, 전체자녀능력, 첫자녀의 학업성취도, 자녀의 건강 등이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시간투자 및 금전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Espenshade, 1973, 1984; Lino, 1990, 1992, 1994; Gronau, 1977, 문숙재, 김성희, 1995). 자녀수는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 및 금전투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자녀를 위한 총지출비는 증가하나 자녀 한명을 위한 지출비는 감소하였다(Becker, 1993; Schultz, 1973). 막내자녀연령은 자녀를 위한 금전투자와는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시간투자와는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Bryant, 1992; Joesch, 1994; Schwenk, 1986; Turchi, 1975). 자녀양육활동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재화의 요구가 증가하고 시간의 요구가 감소하는 시간집약적 활동에서 재화집약적 활동으로 변화하므로(De Tray, 1973; Smith, 1972a), 자녀의 연령 증가에 따라 금전투자는 증가하고 시간투자는 감소하는 것이다. 자녀를 위한 투자량은 자녀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브라이언트 저, 문숙재 외 3인 공역, 1993; 박일규, 1995). 자녀의 능력은 자녀들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 자녀의 정서적 건강 및 신체적 건강, 그리고 첫자녀의 학업성취도 등을 말한다. 자녀의 학업성취도는 사교육비, 부교재비, 교양도서비, 학원수강비, 과외활동비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교통비, 월평균 용돈, 학용품 구입비와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재, 1992; 임혜경, 1991). 건강은 인적자본 투자방법의 하나로 건강이 나쁠 경우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였다(Cunningham, 1990). 자녀가 질병에 걸리면 입원율이 증가하고, 의사를 방문하는 빈도가 증가하므로, 주부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결과를 보였다(Currie & Thomas, 1995). 그러므로 자녀의 질병수, 즉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것은 자녀양육의 요구 증가를 의미하므로, 주부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관련변수에 자녀수, 막내자녀연령, 전체자녀능력, 첫자녀의 학업성취도, 정서적 건강, 신체적 건강 등을 포함시켰다.

3) 심리적 변수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녀에 대한 가치나 기대는 자녀를 위한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Leavy & Olga, 1983; Butz, 1975; Caldwell, 1982a; 八代尙宏 저, 이균 역, 1994; 이승신 외, 1996). 선진국에서 자녀수가 감소하는 것은 자녀를 통해 가계의 대를 잇는다는 사회적 가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녀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는 감소하고 정서적 가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Leavy & Olga, 1983). 즉 자녀를 통해 노후의 부양이나, 미래의 소득을 기대하기 보다는 자녀의 성장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이다(Freedman, 1975). 이처럼 자녀를 투자재가 아닌 소비재로 인식할수록 자녀수는 감소하며, 자녀를 통해 더 많은 정서적 만족을 얻기 위해 자녀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게 된다(Aghajanian, 1988; Lindert, 1983; 八代尙宏 저, 이균 역, 1994). 자녀에 대한 기대 또한 자녀를 위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투자선택은 투자를 통해 가장 높은 생산성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결정을 하게 되므로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자녀에 대한 투자의 양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엘스터 저, 김성철 최문기 공역, 1993; 이기춘 외, 1995), 이것은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이 높음을 밝힌 주영량(1992)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변수에 자녀에 대한 가치와 자녀에 대한 기대를 포함시켰다.

III.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1. 연구모델

주부의 취업유무를 중심으로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투자형태를 시간투자, 금전투자, 그리고 시간투자과 금전투자를 합한 총투자량²⁾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투자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다.

자녀를 위한 투자(시간투자, 금전투자, 총투자량) = f(가족 및 재정관련 변수, 자녀관련 변수, 심리적 변수)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재정관련 변수에는 주부연령, 주부교육수준, 남편 직업, 생활주기, 가계소득, 금융자산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자녀관련 변수에는 자녀수, 막내자녀연령, 전체자녀능력, 첫자녀의 학업성취도, 정서적 건강, 신체적 건강 변수를, 그리고 심리적 변수에는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교육 수준차이, 생활수준차이, 직업차이 변수를 포함하였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로서 남편과 첫자녀를 기준으로 만17세 이하(고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핵가족으로 한정하였다. 자녀의 연령을 17세 이하로 한정된 것은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자녀에 대한 투자행동이 교육비 증가로 인해서 대학생 자녀가 없는 가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Becker, 1980; Schultz, 1961; 통계청, 1994). 가족형태를 핵가족으로 제한한 것은 확대가족의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에 의한 자녀양육의 부담이 상당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업주부의 경우 주부의 직업을 전일제 취업주부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시간제 취업주부는 전일제 취업주부에 비해 시간의 융통성이 많으며, 자녀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에만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주부와 시간제 취업주부의 자녀양육시간과 자녀양육 대체방법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Schwenk, 1986; 김현옥, 1986; 안희순, 1985; 양옥승, 1978).

2) 총투자량은 자녀를 위해 소비하는 시간량을 총합적 대체비용법을 이용하여 화폐로 환산한 후 이를 금전투자량과 합산한 것이다. 총합적 대체비용법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GNP산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며, 과소평가의 문제가 있으나 주부의 관리 능력을 인정하는 평가방법이므로 총합적 대체비용법을 이용하여 주부의 자녀양육가치를 환산하였으며, 적용임금은 노동부나 여성단체, 사회복지관 등에서 1995년 10월 1일에 협의한 임금인 2만 5천원(시간당 3,125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근로소득, 자녀의 연령, 주부의 취업유무 등을 고려한 층화표집방법으로 표집되었다. 근로소득은 도시가계연보의 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표집하였으며, 자녀의 연령은 영·유아기, 학령전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1995년 8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에 의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1995년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설문조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총 850부 중 773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618부(전업주부 350부, 취업주부 268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방법은 <표 1>과 같다.

2) 분석방법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가정의 일반적 특성 및 경향을 조사하기 위해 빈도, 평균, 비율 등을 산출하였다. 또한 가족 및 재정관련 변수, 자녀관련 변수, 그리고 심리적 변수가 자녀를 위한 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OLS(Ordinary Least Squares) 방식에 의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회귀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기초자료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전업주부 가정의 경우 주부의 연령은 평균 37.32세였으며, 평균 교육수준은 13.72년이었다. 남편직업은 전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 방법
<u>종속 변수</u> 시간투자량 금전투자량 총투자량	(식생활 관리 + 의생활 관리 + 주생활 관리 + 신체적 관리 + 비신체적 관리 + 구매 및 경영)에 소비한 시간량 식비 + 광열수도비 + 주거비 + 의복비 + 의료비 + 교양교육오락비 + 교통통신비 + 기타소비지출 + 자녀양육대체비 시간투자량 + 금전투자량
<u>가족 및 재정관련 변수</u> 주부연령 주부교육수준 남편직업 생활주기(첫자녀 연령)	교육연수 자영업자 1=해당 0=비해당 사무직 1=해당 0=비해당 전문직 1=해당 0=비해당 취학전 1=해당 0=비해당 초등학교 1=해당 0=비해당 중학교 1=해당 0=비해당 고등학교 1=해당 0=비해당 급여 + 상여급 + 부업소득 + 이전소득 + 자산소득 (만원/월) 예금 + 보험 + 주식 + 채권 + 계 (백만원)
<u>자녀관련 변수</u> 자녀수 막내자녀연령 전체 자녀능력* 첫자녀의 학업성취도 정서적 건강 신체적 건강*	다른 가정의 자녀와 비교하여 본인 자녀들에 대한 주관적 인식 1 = 매우 나쁘다 3 = 보통이다 5 = 매우 우수하다 1 = 매우 나쁘다 3 = 보통이다 5 = 매우 양호하다 질병수: 기관지염 1 = 있음 0 = 없음 위장염 1 = 있음 0 = 없음 독감 1 = 있음 0 = 없음 피부염 1 = 있음 0 = 없음 눈병 1 = 있음 0 = 없음
<u>심리적 변수</u> 정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교육수준차이 생활수준차이 직업차이	자녀에 대한 기쁨, 애정 등과 관련된 가치 자녀로 부터의 경제적 도움, 자녀의 노동력 등에 대한 가치 자녀를 통한 가계계승, 사회적 의무 등에 대한 가치 1 = 주부의 기대 교육수준 > 자녀의 기대 교육수준 0 = 기타 1 = 주부의 기대 교육수준 = 자녀의 기대 교육수준 0 = 기타 1 = 주부의 기대 교육수준 < 자녀의 기대 교육수준 0 = 기타 1 = 주부의 현재 생활수준 > 자녀의 기대 생활수준 0 = 기타 1 = 주부의 현재 생활수준 = 자녀의 기대 생활수준 0 = 기타 1 = 주부의 현재 생활수준 < 자녀의 기대 생활수준 0 = 기타 1 = 주부의 기대 직업 = 자녀의 기대 직업 0 = 기타

a: 1 = 매우 뒤떨어진다 3 = 보통이다 5 = 매우 우수하다

b: 「1992년도 환자조사보고서」(1994)를 기초로 만 17세 이하의 사람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 5가지를 선정, 가변수처리한 후 이를 더하여 최근 한달간의 질병수를 계산.

c: 1 = 매우 그렇지 않다 3 = 보통이다 5 = 매우 그렇다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범 주 형 변 수		전업주부 (N = 350)		취업주부 (N = 268)	
		빈 도	백 분 율	빈 도	백 분 율
남편직업	단순노무직, 자영상민 및 자영기술자	83	23.7	94	35.1
	사무직	76	21.7	73	27.2
	전문기술직이상	191	54.6	101	37.7
생활주기 (첫자녀)	취학전	68	19.4	40	14.9
	초등학교	148	42.3	111	41.4
	중학교	49	14.0	58	21.6
	고등학교	85	24.3	59	22.1
교육수준차이	주부 > 자녀	107	30.6	76	28.4
	주부 = 자녀	230	65.7	177	66.0
	주부 < 자녀	13	3.7	15	5.6
생활수준차이	주부 > 자녀	10	2.9	7	2.6
	주부 = 자녀	50	14.2	41	15.3
	주부 < 자녀	290	82.9	220	82.1
직업차이	주부 ≠ 자녀	144	41.1	96	35.8
	주부 = 자녀	206	58.9	172	64.2
연 속 형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주부연령(세)		37.32	4.25	37.42	4.28
주부교육수준(년)		13.72	2.33	13.29	2.91
가계소득(만원/월)		232.34	101.46	280.07	111.58
금융자산(백만원)		40.93	67.10	24.42	46.71
자녀수(명)		2.04	0.53	1.93	0.62
막내자녀연령(세)		8.53	4.40	9.19	4.20
전체자녀능력(1-5점)		3.43	0.66	3.35	0.69
첫자녀 학업성적(1-5점)		3.65	0.80	3.51	0.71
정서적 건강(1-5점)		3.60	1.06	3.43	1.02
신체적 건강(1-5개)		0.81	1.05	0.77	1.04
정서적 가치(5-15점)		10.14	2.25	10.34	2.55
경제적 가치(5-15점)		6.28	2.33	6.84	2.41
사회적 가치(5-15점)		6.05	2.21	6.43	2.47

* 결측값으로 인해 빈도의 총합에 차이 있음.

문기술직 이상 54.6%, 단순노무직, 자영상민 및 자영기술자 23.7%, 사무직 21.7%였다. 첫자녀 연령이 초등학교인 경우가 42.3%, 고등학교는 24.3%였으며, 가계소득은 월 평균 232만 3천원이었으며, 금융자산은 평균 4,093만원이었다. 자녀수는 평균 2.04명, 막내자녀연령은 8.53세, 자녀의 질병수는 0.81개, 자녀

에게서 얻는 기쁨이나 애정 등과 관련된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는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 가정의 경우 주부연령은 평균 37.42세, 평균 교육수준은 13.29년이었다. 남편직업은 전문기술직 이상 37.7%, 단순노무직, 자영상민, 그리고 자영기술자 35.1%였으며, 첫자녀 연령은 초등학교

〈표 3〉 자녀에 대한 시간투자

(단위: 시간)

영역	집단 분포	전업주부 (N = 350)					취업주부 (N = 268)					P [@]
		25%	50%	75%	평균	표준 편차	25%	50%	75%	평균	표준 편차	
식생활		0.79	1.19	2	1.48	0.96	0.5	1	1.2	0.98	0.68	...
의생활		0.39	0.79	1	0.80	0.56	0.2	0.5	0.8	0.57	0.49	...
주생활		0.20	0.39	0.61	0.46	0.36	0	0.2	0.5	0.34	0.41	...
신체적 관리		0	0.5	2	1.22	1.60	0	0.4	1.3	0.86	1.21	..
비신체적 관리		1	2.05	3.54	2.44	1.78	0.75	1.43	2.75	1.96	1.65	...
경영 및 구매		0	0.39	0.79	0.44	0.53	0	0.2	0.6	0.39	0.50	
총 시간		4.25	6.25	8.71	6.80	3.51	2.8	4.5	6.4	4.98	3.06	...

@: T - Test 유의도 * < .05 ** < .01 *** < .001

41.4%, 고등학교 22.1%였고, 가계소득은 월 평균 280만원, 금융자산은 2,442만원이었다. 자녀수는 1.93명, 막내자녀연령은 9.19세, 자녀의 질병수는 0.77개, 그리고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는 보통이상이었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가정을 비교해 보면 남편직업, 가계소득, 그리고 금융자산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데, 전업주부 가정에서 남편직업이 전문기술직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금융자산 또한 취업주부 가정에 비해 약 1.7배 정도 높았다. 그러나 가계소득은 취업주부 가정이 전업주부 가정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가정의 자녀를 위한 시간투자의 분포는 〈표 3〉과 같다. 전업주부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총 시간은 1일 평균 6.80시간이었으며, 이 중 비신체적 관리, 식생활 관리, 신체적 관리 등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하위 영역별 시간사용의 분포를 보면 식생활 관리를 위해서는 1일 평균 1.48시간을 사용하였으며, 이 중 하위 25%집단은 1일 0.79시간, 상위 25%집단은 2시간을 자녀의 식사준비 및 간식준비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신체적 관리를 위한 시간 소비는 1일 평균 1.22시간이었으며 하위 25%집단은 0시간, 50%는 0.5시간, 그리고 상위 25%집단은 2시간을 자녀를 씻기고 먹이고 입히는 일을 위해 소비하고 있었다. 신체적 관리의 경우 집단간 시간 소비의 편차가 큰 것은 자

녀의 신체적 관리가 영·유아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기 자녀의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신체적 관리를 위해서는 1일 평균 2.44시간을 소비하고 있었으며, 이 중 하위 25%집단은 1시간, 상위 25%집단은 3.54시간을 자녀와의 대화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위한 물품 구입 등을 위한 경영 및 구매를 위해서 하위 25%집단은 0시간, 상위 25%집단은 0.79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아 경영 및 구매의 영역은 매일 이루어지는 활동 영역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주부 가정의 경우는 자녀를 위해 1일 평균 4.98시간을 소비하고 있었으며, 이 중 비신체적 관리, 식생활 관리, 신체적 관리의 순으로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하위 영역별 시간소비를 보면 식생활 관리를 위해서는 1일 평균 0.98시간을 소비하였으며, 이 중 하위 25%집단은 0.5시간, 상위 25%집단은 1.2시간을 사용하였다. 신체적 관리는 1일 평균 0.86시간으로 50%집단은 1일 0.4시간만을 자녀의 신체적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신체적 관리는 1일 평균 1.96시간으로 하위 25%집단은 0.75시간, 상위 25%집단은 2.75시간을 자녀와의 대화 및 학업지도 등에 소비하였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의 양을 비교해본 결과 구매 및 경영의 영

역을 제외하고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의 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여성개발원(1992)의 연구에서 취업주부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자녀 양육에 있으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전업주부에 비해 적기때문에 자녀에게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영역별로 두 집단간의 시간투자의 분포를 보면 식생활 관리, 신체적 관리, 그리고 비신체적 관리에 있어서, 하위 25% 집단과 50%집단에서는 두 집단간의 시간소비량이 비슷하나, 상위 25%집단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취업주부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금전투자의 분포는 <표 4>와 같다. 전업주부 가정의 경우 자녀를 위해 월 평균 101만 5천원을 사용하였으며, 이 중 교양·교육·오락비, 식비, 피복·신발비의 순으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비목별 금전투자의 분포를 보면 자녀를 위한 식

비 지출은 월 평균 23만 5천원으로, 이 중 하위 25% 집단은 11만 7천원, 50%는 20만 5천원, 상위 25%는 31만원으로 나타났다. 피복·신발비는 월 평균 7만 3천원으로, 하위 25%집단은 3만원, 상위 25%집단은 10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교양·교육·오락비는 자녀를 위한 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목으로 월 평균 59만 3천원을 자녀 교육을 위해 투자하고 있었으며, 이 중 하위 25%집단은 29만 5천원, 상위 25%집단은 74만 1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녀의 교양·교육·오락비를 위한 지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많은 부모가 자녀 교육을 가정의 최대 목표로 정해 놓고 좀 더 나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학교교육 이외의 사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결과는 김행(1994), 조성숙(1994)의 연구와 일치한다.

반면 취업주부 가정에서는 자녀를 위해 월 평균 97만 5천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 중 교양·교육·오락비, 식비, 자녀양육대체비 등의 순으로 지출이 많았다. 전업주부 가정과 달리 취업주부 가정의 경우 자녀양육대체비의 지출이 많은 것은 취업노동 시간에 주부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신 할 양육자나 시설기관 등을 이용하기 때문

<표 4>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금전투자

(단위: 천원)

비목	집단 분포	전업주부 (N = 350)					취업주부 (N = 268)					P@
		25%	50%	75%	평균	표준편차	25%	50%	75%	평균	표준편차	
식비		116.7	205	310	234.6	156.2	100	150	250	192.3	134.4	...
광열·수도비		15	25	36	31.8	28.8	13.3	21.3	40	31.4	28.3	
주거비		6.8	45.8	75	47.6	41.8	0.8	37.5	73.3	44.2	49.6	
피복·신발비		30	50	100	73.2	75.4	20	50	100	72.3	75.9	
의료비		0	25	60	55.8	84.5	0	20	80	60.6	97.5	
교양·교육·오락비		294.8	482.3	741.2	592.7	440.4	176.7	380	660.5	473.5	399.8	..
교통·통신비		0	0	36	26.7	54.9	0	0	30	21.9	45.7	
기타소비지출		0	5	15	34	50.4	5	13.5	36	37.3	74.6	
자녀양육대체비		0	0	0	0.4	7.5	0	0	150	99.2	181.7	...
총지출		618.5	899.8	1269.7	1014.8	560.5	506.4	841.1	1313.3	974.7	619.5	

@: T - Test 유의도 ** < .01 *** < .001

이다. 자녀를 위한 금전투자를 비목별로 보면 식비의 경우 월 평균 19만 2천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 중 하위 25%집단은 10만원, 상위 25%집단은 25만원을 지출하였다.

교양·교육·오락비는 월 평균 47만 4천원으로, 이 중 하위 25%집단은 17만 7천원, 상위 25%집단은 66만 1천원을 자녀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대체비는 월 평균 9만 9천원이었으며, 이 중 상위 25%만이 15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대체비의 경우 집단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양육대체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기가 자녀 스스로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는 취학전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만 이용하며, 자녀 스스로 자신을 돌볼 능력이 생긴 이후에는 자녀양육대체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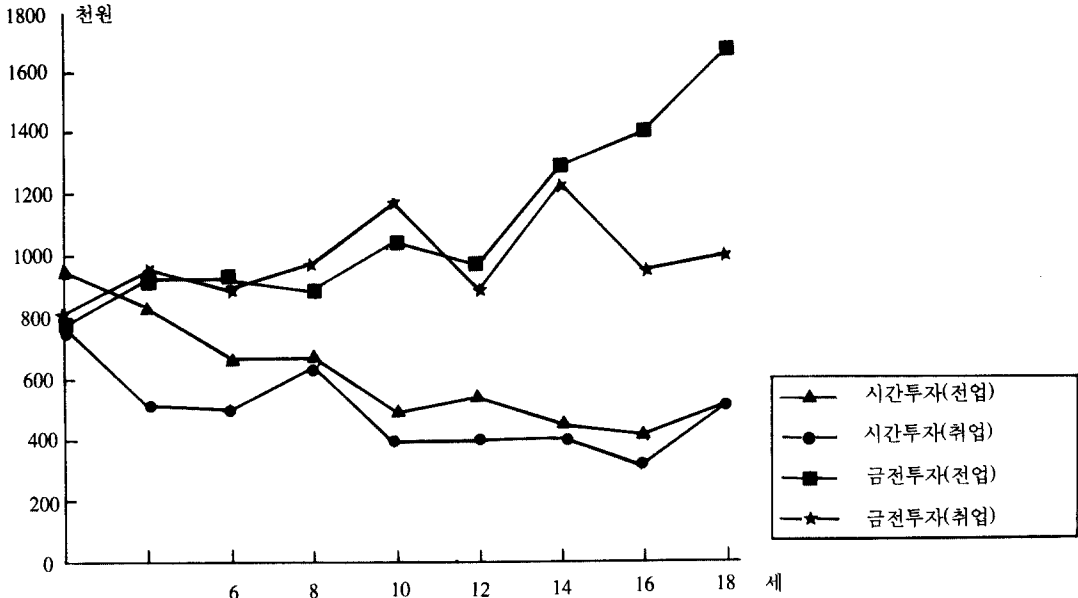
주부의 취업 상태에 따른 자녀의 금전투자의 양을 비교해 본 결과 식비, 교양·교육·오락비, 자녀양육대체비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식비의 경우 하위 25%집단을 제외한 집단에서 전업주부의 금전 지출이 취업주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가 시간부족으로 인해 자녀의 식생활 부분의 상당 부분을 사회화시킬 것이라는 기존의 생각에 위배되는 것으로, 전업주부는 자녀의 건강 등을 위해 양질의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며 그 결과 식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취업주부 가정의 교양·교육·오락비 지출이 전업주부 가정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은, 취업주부의 경우 자녀의 사교육을 위한 정보탐색의 기회가 적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우리나라 취업여성의 많은 수가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전업주부 가정의 금융자산이 취업주부 가정에 비해 현저히 많은 것을 통해 미루어 추정할 수 있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가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의 양을 총합적 대체비용법을 이용하여 화폐액으로 환산한 후 금전투자의 양과 비교해 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가정 모두 자녀를 위한 시간투자보다 금전투자의 양이 많았으며, 특

히, 취업주부의 경우는 전업주부에 비해 시간투자의 양이 적은 것을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업주부 가정의 경우 첫자녀의 연령이 3 - 4세에서 시간투자의 양이 금전투자의 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양육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시간집약적 활동에서 재화집약적 활동으로 변화되는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자녀를 위한 시간투자와 금전투자의 차이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 수록 현저하였으며, 특히 전업주부 가정의 금전투자량이 취업주부 가정에 비해 많았으며,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18세 시기에 절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 진학을 위해 사용하는 지출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주부 가정의 경우 14세 이후 금전지출이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것은 주부의 시간과 정보부족으로 학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 연구문제의 분석

가정에서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를 시간투자, 금전투자, 시간투자과 금전투자를 합한 총투자자로 구분한 후 각각의 투자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OLS방식에 의한 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 <표 6>과 같았다. 전업주부 가정의 경우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시간투자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계소득, 막내자녀연령,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였다.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막내자녀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높을수록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의 양은 증가하였다. 막내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자녀를 위한 시간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Joesch (1994), Schwenk(1986), 정영금(1989)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어린자녀의 관리가 시간집약적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시간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Folbre(199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녀를 통해 얻는 만족으로 인해 주부는 더 많은 시간을 자녀를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전투자에



〈그림 1〉 첫자녀 연령별 시간투자 및 금전투자

는 주부교육수준, 생활주기, 가계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는데, 주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첫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자녀를 위한 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교육수준,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므로 자녀를 위한 금전투자량이 증가한다는 Becker(1981), Schultz(197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생활주기에 따른 금전투자량의 변화는 다른 지출비목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교양·교육·오락비에 의한 차이로 추정된다. 즉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의 모순으로 인해 각 가정에서 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과다한 과외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시간투자량과 금전투자량을 합한 총투자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교육수준, 남편직업, 생활주기, 가계소득였다. 주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직업이 전문직인 경우에 비해 사무직인 경우, 첫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자녀를 위한 총투자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자녀를 위한 총투자

량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학진학을 가정의 최대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온 가족이 노력하는 현 사회의 문제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총투자량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이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Espenshade (1984), Lino(1994), 박일규(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남편직업이 사무직인 경우에 비해 전문직인 경우 총투자량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무직 종사자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신분 상승이나, 자녀만은 부모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기대가 전문직 종사자 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주부 가정의 경우 시간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생활주기, 자녀수, 정서적 건강이었다. 첫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에 비해 취학전인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정서적 건강이 양호할수록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시간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1명 증가하는 경우 자녀를 위한 시간투자는 하루에 0.98시간 증가하는 것으로

〈표 5〉 전업주부의 자녀 투자량(시간투자, 금전투자, 총투자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 = 350)

독립변수	종속변수		시 간 투 자		금 전 투 자		총 투 자 량	
	b	β	b	β	b	β	b	β
<u>가족 및 재정 관련 변수</u>								
주부연령	-0.01	-0.01	-8.65	-0.06	-28.38	-0.20		
주부교육수준	0.12	0.07	57.28**	0.24	55.48*	0.21		
남편직업(사무직)								
자영업자	0.25	0.03	27.22	0.02	-115.69	-0.07		
전문직 이상	0.01	0.00	-137.73	-0.12	-255.18*	-0.21		
<u>생활주기(고등학교)</u>								
취학전	1.79	0.18	-425.49	-0.28	-617.29*	-0.37		
초등학교	-0.57	-0.08	-378.00*	-0.34	-656.82**	-0.55		
중학교	-0.79	-0.08	-286.61	-0.19	-354.48*	-0.20		
가계소득	0.01*	0.15	2.47***	0.43	3.08***	0.48		
금융자산	0.00	0.05	0.21	0.02	-0.18	-0.02		
<u>자녀관련 변수</u>								
자녀수	0.20	0.03	117.63	0.11	111.31	0.09		
전체자녀능력	0.62	0.11	-93.41	-0.11	6.72	0.01		
첫자녀의 학업성취도	-0.16	-0.04	77.66	0.11	107.51	0.13		
정서적 건강	-0.23	-0.07	-12.80	-0.02	-49.54	-0.08		
신체적 건강	0.34	0.01	52.83	0.10	79.56	0.14		
막내자녀연령	-0.32***	-0.40	20.23	0.16	-26.06	-0.19		
<u>심리적 변수</u>								
정서적 가치	0.23*	0.15	-1.36	-0.01	20.78	0.08		
경제적 가치	0.04	0.03	-0.68	-0.00	-9.66	-0.04		
사회적 가치	0.07	0.05	-6.91	-0.03	20.97	0.08		
<u>교육수준차이(주부=자녀)</u>								
주부>자녀	-0.03	-0.00	-75.07	-0.06	-72.21	-0.05		
주부<자녀	-0.68	-0.04	181.86	0.07	418.77	0.15		
<u>직업차이(주부=자녀)</u>								
직업차이(주부=자녀)	-0.23	-0.03	83.69	0.08	57.39	0.05		
<u>생활수준차이(주부=자녀)</u>								
주부>자녀	0.44	0.02	151.75	0.04	453.68	0.11		
주부<자녀	-0.27	-0.03	-0.17	0.00	97.38	0.06		
상 수	2.74		20.02		1142.38			
R ²	.41		.40		.36			

* < .05 ** < .01 *** < .001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Walker 와 Woods(1976), Sanik(1981), 김혜연(199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첫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에 비해 취학전인 경우 시간투자의 양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 자녀양육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

하다는 Joesch(1994), 문숙재, 김성희(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금전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부교육수준, 가계소득, 자녀수였다. 주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를 위한 금전투자량은 증

〈표 6〉 취업주부의 자녀 투자량(시간투자, 금전투자, 총투자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N = 268)

독립변수	종속변수		시 간 투 자		금 전 투 자		총 투 자 량	
	b	β	b	β	b	β	b	β
<u>가족 및 재정 관련 변수</u>								
주부연령	-0.03	-0.04	4.45	0.03	-5.16	-0.03		
주부교육수준	0.18	0.19	56.83*	0.26	64.48*	0.28		
남편직업(사무직)								
자영업자	-0.38	-0.06	-238.38	-0.18	-163.49	-0.12		
전문직 이상	0.63	0.10	-68.95	-0.05	-54.21	-0.04		
생활주기(고등학교)								
취학전	2.86*	0.27	-416.72	-0.20	-43.79*	-0.02		
초등학교	1.38	0.23	-306.04	-0.24	-102.56	-0.07		
중학교	0.25	0.04	-170.93	-0.11	-179.74	-0.11		
가계소득	-0.00	-0.16	1.39*	0.25	1.61*	0.26		
금융자산	0.00	0.06	1.65	0.14	1.77	0.14		
<u>자녀관련 변수</u>								
자녀수	0.98*	0.20	222.12*	0.21	324.83**	0.29		
전체자녀능력	0.05	0.10	129.05	0.14	56.87	0.06		
첫자녀의 학업성취도	-0.21	-0.05	-50.59	-0.06	-42.67	-0.05		
정서적 건강	0.46*	0.15	-37.61	-0.06	19.60	0.03		
신체적 건강	0.38	0.13	18.37	0.03	47.26	0.07		
막내자녀연령	-0.06	-0.07	1.79	0.01	3.67	0.02		
<u>심리적 변수</u>								
정서적 가치	0.10	0.08	34.72	0.14	37.71	0.14		
경제적 가치	0.06	0.05	-38.13	-0.15	-29.82	-0.10		
사회적 가치	-0.14	-0.11	-11.70	-0.04	-25.45	-0.09		
교육수준차이(주부=자녀)								
주부>자녀	-0.18	-0.03	-102.03	-0.07	-117.90	-0.07		
주부<자녀	0.68	0.05	-3.33	-0.00	26.38	0.01		
직업차이(주부=자녀)								
직업차이(주부=자녀)	0.21	0.03	-67.91	-0.05	-52.15	-0.04		
생활수준차이(주부=자녀)								
주부>자녀	-1.71	-0.08	-327.93	-0.07	-86.22	-0.02		
주부<자녀	-0.24	-0.03	100.01	0.06	116.97	0.06		
상 수	0.79		-583.30		-370.43			
R ²	.26		.43		.40			

* < .05 ** < .01

가하였다. 자녀를 위한 지출비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고 하지만 양질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의 소비가 필요하므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자녀를 위한 금전투자량은 증가하는 것이다. 총투자량에는 주부교육수준, 생활주기, 가계소득, 자녀

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즉 주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첫자녀가 취학전인 경우에 비해 고등학생인 경우,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를 위한 총투자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가 취학전인

경우에 비해 총투자량이 증가하는 것은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금전투자량이 이 시기에 현저히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주부교육수준, 생활주기, 가계소득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가정 모두에서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남편직업, 막내자녀연령,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는 전업주부 가정에만, 그리고 자녀수와 자녀의 정서적 건강은 취업주부 가정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주부교육수준이 높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Becker(1980), Schultz(1973)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소수의 교육받은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투자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주기가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녀양육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시간집약적 활동에서 재화집약적 활동으로 변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시간투자는 구매 및 경영의 영역을 제외하고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전업주부의 자녀를 위한 시간 사용이 취업주부에 비해 많았는데, 이는 주부의 취업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가정 모두 시간투자 중 비신체적 관리를 위한 시간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를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금전투자의 경우는 식비, 교양·교육·오락비, 자녀양육대체비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업주부 가정에서는 식비, 교양·교육·오락비의 지출이 많았으며, 취업주부 가정에서는 자녀양육대체비의 지출이 많았다. 지출 비목중에서는 두 집단 모두 교양·교육·오락비의 지출이 가장 많아, 자녀 교육

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진학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가정의 현실태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전업주부 가정의 경우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막내자녀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높을수록 자녀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투자는 주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첫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그리고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자녀를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투자와 금전투자를 합한 총투자량은 주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편이 사무직 종사자인 경우, 첫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전업주부 가정에 있어서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투자능력을 나타내는 주부교육수준과 가계소득, 그리고 투자기회를 의미하는 생활주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많은 경우 부모는 양질의 자녀를 원하므로 자녀를 위한 시간투자와 금전투자는 증가하는 것이다. 반면 취업주부 가정의 경우 첫자녀가 취학전인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정서적 건강이 양호할수록 자녀를 위한 시간투자는 증가하였다. 금전투자의 경우 주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를 위한 금전투자량은 증가하였으며, 총투자량은 주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첫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취업주부 가정의 자녀를 위한 투자에는 주부교육수준, 가계소득, 자녀수가 중요한 영향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주부교육수준과 가계소득은 두 집단에서 공히 자녀를 위한 투자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구청단위의 문화강좌 등을 이용한 주부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적자본으로서의 자녀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며, 가계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전업주부에게는 백화점이나 기업의 판매사원 등과 같은 시간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부업소득의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취업주부에게는 소득세 감면과 함께 기업보조를 통해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등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가정의 투자량에 대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초기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주부의 투자행동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가정내에서 자녀의 인적자본을 형성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사람은 주부만이 아니다. 남편, 조부모, 자녀관리서비스 제공자 등도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해 투자를 하는 투자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타 가족원 및 자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인의 투자행동이 함께 측정되어야만 가정에서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해 제공하는 총투자량이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객관화된 척도의 부재로 인해 자녀를 위한 투자행동에 시간과 금전투자만이 포함되었으며, 주부의 심리적·신체적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의 정도, 즉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비용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금전투자의 양뿐만 아니라 심리적·신체적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화된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객관화된 척도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투자행동에 대한 객관적 측정과 함께 투자량에 대한 부담, 자녀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 신체적 부담과 같은 자녀에 대한 투자비용의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투자비용까지를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이 해결된다면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가정의 투자행동을 좀 더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사회의 인적자본의 질 예측과 함께 사회의 발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주부의 이혼시, 또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편모 가정의 자녀양육비 책정시 자녀양육에 대한 주부의 기여 정

도가 반영된 합리적인 자녀양육비 책정이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용재(1992), 가정환경에 따른 사교육비 운용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2) 김혜연(1995), 취업주부의 비용과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3) 문숙재, 김성희(1995), 자녀교육 및 양육비용의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301-314.
- 4) W.케이드 브라인던트 저, 문숙재, 김순미, 소연경, 홍성희 공역. 「가정경제」. 서울: 한울, 1993.
- 5) 블라우, F.D.와 M.A. 퍼버 저, 문숙재, 김순미, 정순희 공역 (1994). 「여성과 남성 그리고 노동의 경제학」, 서울: 학지사.
- 6) 문숙재, 김혜연(1994), 전업주부가 인식하는 주부직의 혜택과 비용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 15-29.
- 7) 박일규(1995). 「노동경제학」, 서울: 박영사.
- 8) 박창영(1991). 인적자본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9) 八代尙宏 저, 이균 역(1994). 「결혼경제학」, 한국경제신문사.
- 10) 이기춘 외(1995), 「소비자학의 이해」, 서울: 학원사.
- 11) 이승신 외(1996), 「가계경제학」, 서울: 학지사.
- 12) 임혜경(1991), 초등학교 사교육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13) 조성숙(1994). 가족의 자녀교육.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여성한국사회연구회 제4회 심포지움, 43-95.
- 14) 한국여성개발원(1992).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한국여성개발원.
- 15) Aghajanian, Akbar(1988). The Value of Children

- in Rural and Urban Iran: A Pilot Stud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9(1), 85-97.
- 16) Becker, Gary S.(1962).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 Treoretical Anal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Oct. 9-49.
- 17) _____(1993). *Human Capita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rd ed.
- 18) Bryant, W. Keith(1992). *The Economic Oganization of the Households*. Cambridge Uni. Press: New York.
- 19) De Tray, Dannis N.(1973). Child Quality and the Demand for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S70-S95.
- 20) Espenshade, Thomas J.(1984). *Investing in Children*. The Urban Institute Press-Washington, D.C.
- 21) Gronau, Reuben(1991). The Intrafamily Allocation of Goods-How to Separate the Adult from the Child. *Journal of Labor Economics*, 9(3), 207-235.
- 22) Joesch, Jutta M.(1991). The Effect of the Price of Child Care on AFDC Mothers' Paid Work Behavior. *Family Relations*, 161-165.
- 23) Leibowitz, Arleen, Jacob Alex Klerman & Linda J. Waite(1992). Employment of New Mothers and Child Care Choice.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7(1), 112-133.
- 24) Lino, Mark(1990). Factors Affecting Expenditures of Single-Parent Household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8(3), 191-201.
- 25) _____(1990). Expenditures on a Child by Husband-Wife Families. *Family Economics Review*, 3(3), 2-18.
- 26) _____(1994). Expenditures on a Child by Families 1993, *Family Economics Review*, 7(3), 2-19.
- 27) Schultz, Theodore W.(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1(1), 226-242.
- 28) Schwenk, Frankie N.(1986). Households with Expenditures for Housekeeping Services, Including Child Care. *Family Economics Review*, 2(4), 15-20.